

#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 순 호\*\*

## The Consciousness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Policy Implication : A Questionnaire Survey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in Elementary Schools, Daegu City\*

Park, Soon Ho\*

**요약** : 본 연구는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교육에 초점을 둔 시민교육이 중심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다문화교육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거나, 대중매체에 의한 간접 경험의 결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수준과 만족도가 매우 낮고, 의식도 편협적이었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기존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향성과 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되, 현재의 초등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범교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 다문화 학교교육, 다문화주의, 정책적 함의

**Abstract** : This research analyzed real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Korea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in elementary schools, Daegu City.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mainly helped a member of multicultural family who immigrated into Korea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us, the common people have a few chances to have multicultural education; however they mainly experienced multicultural indirectly through mass media. Therefore they had low level of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and their consciousness was narrow. Most of people completely come out in sympathy with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taught at school. To overcome the current issu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ts goals, contents and task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Multicultural education is taught from elementary school in holistic approach; however, methods of learning and teaching are different according to a curriculum.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consciousness on multicultural education, school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ism, policy implication

## 1. 서 언

### 1) 연구목적

2008년 말 현재 국내거주 국제결혼이주자는 12만2천500여 명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55만 여 명(영남일보 2009년 3월 23일)으로 대략 67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인종이나 민족 갈등 등이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살아감에 있어

서 필요한 교육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민족 갈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하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다문화 가정의 지원과 대책 마련에 과히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다문화사회란 협의로는 '인종적·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광의로는 '구별은 되지만 동등한 여러 문화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정의(천선영, 2004)되지만, 보다 쉽게 말하자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로 동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더불어

\* 본 논문은 2008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ea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hpark@dnue.ac.kr)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주류문화에 대한 차별과 주류문화로의 인위적인 동화정책이라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을 통하여 주류사회로의 동화에 무게를 두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다문화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필요조건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해소라는 충분조건도 만족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인식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문화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국제결혼이주자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중적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중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이 전제된다. 물론 다문화교육도 주류와 비주류 사회구성원, 학교 및 시민 등의 교육대상,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그 유형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개념(Baker, 1994; Suzuki, 1979; Davidman, 1997; 박상철, 2008)과 목표(Banks, 2004; Sleeter & Grant, 1987; Ramsey & Derman-Sparks, 1992; Derman-Spark, 1989; Ramsey, 1987)도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거나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 특히 국제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문화교육 중심의 시민교육과 지원에 초점을 둔, 말하자면 외국인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고 사회화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다(김선미·김영순, 2008).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이민을 상대적

으로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도 초기에는 동화주의 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후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小林哲也·江淵一公, 1997).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국제결혼이주자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학자녀는 각각 18,778명과 1,401명으로 총 20,180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의 취학연령대의 자녀수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인, 2009).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취학자녀들은 부모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성장과정부터 기초학습이 제대로 되지 못한 관계로 학교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로 심한 따돌림을 받음으로써 고학년이 될수록 이들의 이른바 ‘탈학교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학교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취학자녀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학습교수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고 있다(김인, 2009).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야에 걸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의 관련 주체들의 성격은 사회문화적으로, 심지어는 인종적으로도 지극히 상이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의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실태(김갑성, 2006; 이수정, 2009; 박은애, 2007; 홍영숙, 2007, 안경식 등, 2007 등)와 실천적 방안(장인실, 2008; 원은경, 2007; 최연경, 2008; 은지용, 2007 등) 그리고 정책대안(전경숙 등, 2007; 김인, 2009; 박상철, 2008; 교육인적자원부, 2006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다문화가정의 취학자녀의 절대다수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다문화 학교교육<sup>1)</sup>의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한 의식의 실태 및 특성을 고찰하고, 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 조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과 설문조사 분석 대상자의 현황  
본 연구의 연구대상, 즉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대상은 대구시 초등학교의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이다. 연구대상 선정 이유로는, 첫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2008년 현재 국제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취학자녀의 77.1%가 초등학교생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하였으며, 둘째 설문조사 대상자로 교사 외에 일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시킨 것은 다문화 학교교육의 목적이 다문화 가정의 취학자녀 뿐만 아니라 이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는 일반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 행

동양식의 교육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 대도시의 하나인 대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다문화가정이나 그 자녀수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면,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역별 비율의 평균<sup>2)</sup>과 비슷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보수성이 강한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2008년 말 현재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소재 초등학교는 186개교로, 총 재적 학생은 175,778명이고, 교사는 7,774명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대상은 7개구의 전체 초등학교의 30%에 해당하는 57개교<sup>3)</sup>의 학생 124명, 교사 260명 그리고 학부모 132명 등 총 516명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 6일에서 10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대상자는 총 516명으로, 그 중에서 학생은 24%, 교사 50.4% 그리고 학부모는 25.6%를 차지한다. 이들의 성별구성은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인 반면에 학생의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이와 같이 교사와 학부모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또 초등학교의 경우 대체로 어머니가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로 판단

표 1. 설문조사 분석 대상자의 지역분포

(단위: 명, %)

구분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동구	8(14.0)	12(9.7)	16(12.1)	33(12.7)
서구	2(3.5)	20(16.1)	19(14.4)	21(8.1)
남구	6(10.5)	20(16.1)	21(15.9)	38(14.6)
북구	4(7.0)	16(12.9)	20(15.2)	27(10.4)
중구	5(8.8)	12(9.7)	20(15.2)	24(9.2)
수성구	16(28.1)	20(16.1)	16(12.1)	73(28.1)
달서구	16(28.1)	24(19.4)	20(15.2)	44(16.9)
계	57(100.0)	124(100.0)	132(100.0)	260(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표 2. 설문대상자의 연령 및 학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계
교사	남	52(62.7)	12(12.0)	16(19.3)	3(3.6)	83(100.0)
	여	108(61.0)	47(47.0)	18(10.2)	4(2.3)	177(100.0)
	소계	160(61.5)	59(22.7)	34(13.1)	7(2.7)	260(100.0)
학부모	남	9(25.7)	22(62.9)	3(8.6)	1(2.9)	35(100.0)
	여	52(53.6)	42(43.3)	2(2.1)	1(1.0)	97(100.0)
	소계	61(45.9)	64(48.1)	6(4.5)	2(1.5)	132(100.0)
구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학생	남	11(19.3)	17(29.8)	14(24.6)	15(26.3)	57(100.0)
	여	9(13.4)	20(29.8)	22(32.8)	16(23.9)	67(100.0)
	소계	20(16.1)	37(29.8)	36(29.0)	31(25.0)	124(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된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는 교사의 경우 30대 이하가 160명으로 전체의 6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대 59명(22.7%), 50대 34명(13.1%)의 순이다.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

는 30대 이하(45.9%)와 40대(48.1%)가 90%이상이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로 1~2학년생을 당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학년별 구성비를 보면 4학년이 37명

표 3. 설문내용과 변수 및 그 범주 값

설문내용	변수	변수명	변수의 범주 값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X1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지정도	1=매우 잘 알고 있다, 2=잘 알고 있다, 3=보통이다 4=잘 알지 못한다, 5=전혀 알지 못한다
	X2	다문화교육의 개념	1=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2=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 4=기타
	X3	다문화교육의 경험 유무	1=있다, 2=없다
	X4	다문화교육 경험 경로	1=학교교육을 통해서 2=대중매체(TV, 인터넷 등)를 통해서 3=직장교육을 통해서(학부모) 3=부모님을 통해서(학생) 3=교사연수를 통해서(교사) 4=NGO 등 다문화 관련기관을 통해서 5=책이나 팸플릿을 통해서 6=기타
	X5	다문화교육 경험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X6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	1=매우 필요하다, 2=필요하다, 3=그저 그렇다 4=필요하지 않다, 5=절대 필요하지 않다
	X7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한 이유	1=타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확대 2=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 3=인종, 성, 사회적 지위 등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식의 확대 4=우리사회에도 타 문화권 출신자(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 등)가 늘어나기 때문 5=기타
	X8	현재 다문화 학교교육의 실시 정도	1=매우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보통임 4=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실시시기	X9	바람직한 교육과정	1=범교과적으로 실시 2=특정과목 중심으로 실시 3=다문화 교육 전문가에 대한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 형태로 실시 4=기타
	x10	바람직한 수업방법	1=전 단원에 걸쳐 실시, 2=하나의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3=특별수업의 형태, 4=기타
	x11	적정 실시시기	1=유치원,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9.8%)으로 가장 많고 높고 다음으로 5학년(29.0%), 6학년(25.0%) 그리고 3학년(16.1%)의 순이다.

(2) 설문지 내용 및 변수의 구성

설문내용은 크게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방법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부문별 변수는 먼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대한 변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지정도(X1), 다문화교육의 개념(X2), 다문화교육의 경험 유무(X3), 경험 경로(X4)와 다문화교육 경험 만족도(X5)로,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한 변수는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X6),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한 이유(X7) 및 현재 다문화 학교교육의 실시정도(X8)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방법의 변수는 바람직한 교육과정(X9)과 바람직한 수업방법(X10) 그리고 적정 실시시기(X11) 등 총 11개의 변수로 구성된다(표 3).

2.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지구적 차원의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맥락 속에서 우리 사회에 편입된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민족적 우월감을 극복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사회로의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 행동양식과 생활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실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안경식 등, 2008).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실천되고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관련주체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정도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의 경험과 그 만족도 등을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 516명의 설문대상자 중 다문화교육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8명(67.4%)이다. 이들 중에는 교사가 246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부모 66명(19.0%), 학생 36명(10.3%)의 순이었다. 다문화 교육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4%(182명), 잘 알지 못함이 25.1%, 잘 알고 있음이 1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경우는 3.5%에 지나지 않지만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들은 적은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교사와 학생이 각각 1명, 학부모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27.3%를 차지하는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부모가 그들의 자녀인 초등학생보다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한 구체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은 해당 국가나 사회적 상황과 그것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小林哲也·江淵一公, 1997)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이나 성격에 대한 심층적 논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의 실태와 특성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다문

표 4.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단위: 명, %)

구분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보통	잘 모름	전혀 모름	합계
교사	10(4.1)	57(23.2)	126(51.2)	52(21.1)	1(0.4)	246(100.0)
학부모	1(1.5)	3(4.6)	31(47.7)	28(43.1)	2(3.1)	65(100.0)
학생	1(2.8)	2(5.6)	25(69.4)	7(19.4)	1(2.8)	36(100.0)
합계	12(3.5)	62(17.9)	182(52.4)	87(25.1)	4(1.2)	347(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화교육을 그 내용과 대상을 기준으로 조작적으로 3가지로 범주화하고(표 3), 이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의 정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63.1%인 219명이고, 그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5.9% (90명),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이 8.9%(31명)의 순이었다.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좁은 의미이고 넓은 의미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일반아이가 삶의 동반자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 전체' 등을 포함한 기타가 2%(7명)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보다는 교사나 학부모의 비율이 대략 10% 이상 높은 반면에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결과적으로 현재 대구시 초등학교의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은 대체로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문화, 인종, 사회에 속한 집단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실행하는 것"(The encyclopedia of American education, 1996)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 91명을 제외한 256명은 나름대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였는가를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와 그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경험의 유무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23%인 119명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교사(32.8%)와 학생(21.8%)은 그 차이가 약 10%에 지나지 않으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겨우 5.3%에 지나지 않아 교사·학생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이들이 다문화교육을 경험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TV나 인터넷을 통한 대중매체를 통한 경우가 전체의 34.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직장연수교육을 통해서가 21.2%, 책이나 팸플릿을 통한 경우가 22.0%를 차지하는 반면에 학교교육은 13.6%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와 NGO 등 다문화 관련기관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경로별 비중에 있어서 교사는 직장연수를 통한 경우, 학생은 부모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표 7).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는 대중매체(TV, 인터넷 등)와 책이나 팸플릿을 통한 경우 등 파편적이고 비체계적인 수단을 통한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큰 점에서 교

표 6. 다문화교육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합계
교사	85(32.8)	174(67.2)	259(100.0)
학부모	7(5.3)	125(94.7)	132(100.0)
학생	27(21.8)	97(78.2)	124(100.0)
합계	119(23.1)	396(76.9)	515(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표 5. 다문화교육의 개념

(단위: 명, %)

구분	다양한 문화의 이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기타	합계
교사	154(62.6)	67(27.2)	18(7.3)	7(2.8)	246(100.0)
학부모	41(63.1)	17(26.2)	7(10.8)	-	65(100.0)
학생	24(66.7)	6(16.7)	6(16.7)	-	36(100.0)
합계	219(63.1)	90(25.9)	31(8.9)	7(2.0)	347(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무응답 제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표 7. 다문화교육 경험 경로

(단위: 명, %)

구 분	교사	학부모	학생	합계
학교교육을 통해서	11(13.1)	1(14.3)	4(14.8)	16(13.6)
대중매체(TV, 인터넷 등)를 통해서	27(32.1)	4(57.1)	10(37.0)	41(34.7)
직장연수를 통해서	25(29.8)	-	-	25(21.2)
부모님을 통해서	-	-	4(14.8)	4(3.4)
NGO 등 다문화 관련기관을 통해서	2(2.4)	-	2(7.4)	4(3.4)
책이나 팸플릿을 통해서	18(21.4)	2(28.6)	6(22.2)	26(22.0)
기타	1(1.2)	-	1(3.7)	2(1.7)
합계	84(100.0)	7(100.0)	27(100.0)	118(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8. 다문화교육 경험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 통	대체로 불만족	합 계
교사	-	14(16.5)	52(61.2)	19(22.4)	85(100.0)
학부모	-	-	5(71.4)	2(28.6)	7(100.0)
학생	3(11.1)	7(25.9)	15(55.6)	2(7.4)	27(100.0)
합계	3(2.5)	21(17.6)	72(60.5)	23(19.3)	119(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사 및 학생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학부모 들은 다문화교육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통한 자녀들의 다문화교육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에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60.5%로 가장 높고, 대체로 불만족한 경우가 19.3%, 대체로 만족한 경우가 17.6%를 차지한 반면에 매우 만족인 경우는 2.5%에 지나지 않고, 특히 이들은 모두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와 다문화교육 경험 경로의 경우와는 달리 교사와 학부모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는 반면에 학생이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경우는 매우 만족은 말할 것도 없고 대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교사의 경우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16.5%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만족이 25.9%, 매우 만족이 11.1%로, 전체 학생의 37%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 3.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우선 인권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교육 및 학습권의 보장, 사회적 차원에서는 갈등해소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 제공에 있다(안경식 등, 2008). 기존의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을 포괄적인 소외계층으로 보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복지에 초점을 맞춘 사회교육이 중심되고 있다(안경식 등, 2008, 47-48). 따라서 앞으로는 소수문화집단에 대한 이해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을 교육하는 다문화에 대한 학교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 그리고 현재의 다문화 학교교육의 정도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학교교육이 절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3.9%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필요(64.5%)하거나 매우 필요하다(13.5%)는, 즉 다문화 학교교육

표 9. 다문화 학교교육 필요성의 정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절대 불필요	합 계
교사	50(19.2)	184(70.8)	23(8.8)	3(1.2)	-	260(100.0)
학부모	15(11.4)	89(67.4)	23(17.4)	5(3.8)	-	132(100.0)
학생	4(3.2)	60(48.4)	48(38.7)	11(8.9)	1(0.8)	124(100.0)
합계	69(13.4)	333(64.5)	94(18.2)	19(3.7)	1(0.2)	516(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응답자가 78%를 차지함으로써 절대다수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 필요성의 인식정도에 있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90%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을 직접 담당하여야 하는 교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속하는 이들의 생활 적응 및 문화정체성 함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고, 둘째, 이러한 다문화 학교교육은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지 않고는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강하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학부모의 경우 약 79% 정도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그 비율에 있어 교사보다 약간 낮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약 10% 정도는 다문화 학교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절반정도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에 있어서 교사나 학부모와는 상이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다문화 학교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부족과 학교생활에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직접 어울리거나 그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을 공유해 본 경험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대상자의 절대다수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이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는 제시한 것이 <표 10>이다. 현재 우

리나라의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우리사회에도 타 문화권 출신자(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 등)가 늘어나기 때문'(36.8%)이며, 그 다음으로는 '인종, 성, 사회적 지위 등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식의 확대'(32.7%), '타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확대'(20.4%),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은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함에 있어서 구성원 간 갈등의 최소화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교육을 다양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즉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Baker, 1994)에서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 또한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조사대상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사와 학부모는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단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의 학부모 비율(11.5%)이 교사보다 약 3배정도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에 학생들은 교사와 학부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학생은 '타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확대'가 46%를 차지하여 다른 이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았던 '우리사회에도 타 문화권 출신자(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 등)가 늘어나기 때문'은 겨우 15.3%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기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현실적인 이유보다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할 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표 10.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교 사	학부모	학 생	합 계
타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확대	31(12.0)	17(13.0)	57(46.0)	105(20.4)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	12(4.6)	15(11.5)	21(16.9)	48(9.3)
인종, 성, 사회적 지위 등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식의 확대	100(38.6)	43(32.8)	25(20.2)	168(32.7)
우리사회에도 타 문화권 출신자(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그 자녀 등)가 늘어나기 때문	114(44.0)	56(42.7)	19(15.3)	189(36.8)
기타	2(0.8)	-	2(1.6)	4(0.8)
합계	259(100.0)	131(100.0)	124(100.0)	514(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성인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있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교교육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별로 그 영역과 정책 그리고 실천계획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선미·김영순, 2008).

이에 다문화 학교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학교교육의 실태를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대구지역의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의한 다문화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자가 약 절반 정도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의 비율이 각각 36.6%와 8.8%로 매우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과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의 비율(5.1%)의 9배에 달하고 있다(표 11). 따라서 대구지역에 있어서의 다문화 학교교육의 수준은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대구시 다문화 학교교육 수준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보다는 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교사와 학부모는 다문화 학교교육은 우리사회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들의 정착과정에 있어서의 갈등 해소라는 현실적인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다문화교육에

표 11. 현재의 다문화 학교교육 정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보통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합계
교사	-	7(2.7)	128(49.4)	112(43.2)	12(4.6)	259(100.0)
학부모	-	4(3.1)	59(45.4)	56(43.1)	11(8.5)	130(100.0)
학생	1(0.8)	14(11.3)	67(54.0)	20(16.1)	22(17.7)	124(100.0)
합계	1(0.2)	25(4.9)	253(49.3)	188(36.6)	45(8.8)	513(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교교육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교사나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현재 다문화 학교교육 수준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간의 의식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 4.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방법

다문화 학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향성 그리고 과제가 학교교육 관련주체들 간의 공감대를 전제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협상·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 공동체의 건설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육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Banks, 2001).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괄적인 소의 계층으로 보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복지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차원

의 교육활동으로,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 교육에 초점을 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수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이다(안경식 등, 2008).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전자에 치중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다문화 학교교육의 영역에 속하는 후자의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학교교육의 강화 방안은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어느 시기부터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먼저 다문화학교교육의 교육과정은 범교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4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 전문가의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 형태(27.6%),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실시해야한다(21.7%)의 순이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범교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약 70%정도로 학부모(37.1%)와 학생(16.1%)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에 학생의 경우에는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가의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 형태(32.3%)이고, 범교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16.1%에 지나지 않아 학부모나 특히 교사와는 의식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이는 현재 초등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이 기존의 특정 교과목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운 분야는 문화나 환경 그리고 예절에 관한 교육 등 학제적 성격이 강해서 범교과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에 익숙한 교사나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초등학생 간의 의식이 다른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바람직

표 12.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

(단위: 명, %)

구 분	교 사	학부모	학 생	합 계
범교과적으로 실시	180(69.5)	49(37.1)	20(16.1)	249(48.3)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18(6.9)	37(28.0)	57(46.0)	112(21.7)
다문화 교육 전문가의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 형태	57(22.0)	45(34.1)	40(32.3)	142(27.6)
기타	4(1.5)	1(0.8)	7(5.6)	12(2.3)
합계	259(100.0)	132(100.0)	124(100.0)	515(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식과 정책적 함의: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표 13. 다문화교육의 바람직한 수업방법

(단위: 명, %)

구 분	교 사	학부모	학 생	합 계
전 단원에 걸쳐	77(33.6)	47(37.3)	24(20.5)	148(31.4)
특정단원에서 집중적	76(33.2)	29(23.0)	39(33.3)	144(30.5)
특별수업 형태	70(30.6)	49(38.9)	48(41.0)	167(35.4)
기타	6(2.6)	1(0.8)	6(5.1)	13(2.8)
합계	229(100.0)	126(100.0)	117(100.0)	472(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한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특별수업형태가 35.4%로 그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전 단원에 걸쳐서(31.4%) 하거나 특정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30.5%)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람직한 수업방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관계 주체 간에는 약간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교사의 경우에는 특별수업형태에 대한 선호도(30.6%)가 학생(41.0%)이나 학부모(38.9%)에 비해 낮은 반면에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수업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 단원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반면에 학부모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특별수

업 형태나 범교과적 혹은 전 단원에 걸친 수업 등 유연성이 큰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13).

다문화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에 대한 선호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교과적인 교육과정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 단원에 걸쳐',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하나의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문화 교육 전문가의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의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수업의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그리고 다문화 학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시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비율이

표 14. 다문화 교육의 실시방법과 수업방법

(단위: 명, %)

교육과정	수업방법	전 단원에 걸쳐 실시	하나의 단원에 집중적	특별수업 형태	기 타	합 계
범교과적으로 실시		100(45.7)	66(30.1)	46(21.0)	7(3.2)	219(100.0)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26(23.4)	50(45.0)	34(30.6)	1(0.9)	111(100.0)
다문화 교육 전문가의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 형태		22(17.1)	25(19.4)	81(62.8)	1(0.8)	129(100.0)
기타		-	2(16.7)	6(50.0)	4(33.3)	12(100.0)
합계		148(31.4)	143(30.4)	167(35.5)	13(2.8)	471(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표 15. 다문화 학교교육의 실시시기

(단위: 명, %)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교사	114(43.8)	132(50.8)	8(3.1)	6(2.3)	260(100.0)
학부모	29(22.0)	95(72.0)	7(5.3)	1(0.8)	132(100.0)
학생	15(12.2)	66(53.7)	35(28.5)	7(5.7)	123(100.0)
합계	158(30.7)	293(56.9)	50(9.7)	14(2.7)	515(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5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30.7%), 중학교(9.7%), 고등학교(2.7%)의 순이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72.0%로 교사(50.8%)와 학생(53.7%)보다 약 20% 이상 높은 점을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라고 하겠다(표 15).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교육과정이나 수업방법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선호도는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대상을 명확하게 구분(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일반 학생, 교사, 학부모)하고, 각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과정과 내용 그리고 수업방법을 포함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대구시 초등학교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있어서는 다문화교육에 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비율이 총 조사대상자의 30%, 학부모의 50%, 특히 학생의 7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스스로가 보통보다는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그렇지 못한 비율보다 낮았다. 더욱이 보통보다는 잘 알고 있다는 비율에 있어서 교사의 경우도 전체의 1/4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학부모는 초등학교생인 자녀보다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른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으로, 반면에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교사와 학생은 각각 33%와 22% 정도이고, 학부모는 겨우

5%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TV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중심이고 학교나 다문화 관련기관을 통한 직접 경험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 실제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초등교육 3대 주체가 현재의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지수이다.

둘째, 이상의 열악한 다문화교육의 실태를 반영하듯 다문화 학교교육 대해서는 절대대수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다문화 학교교육이 필요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사회구성원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이었다. 그러나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교사나 학부모와는 달랐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부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갈등을 공유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다문화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의 거의 9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초등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다문화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셋째, 다문화 학교교육의 교육과정과 그 실시 시기에 있어서는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되 범교과적 교육과정이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교과적인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전 단원에 걸쳐', 특정과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문화 교육 전문가의 위탁을 통한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특별수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한 교육과정이나 수업방식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선호도가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요약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assimilation)

성향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국제결혼이주자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글과 한국문화교육 중심의 동화주의에 초점을 둔 결과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관점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편협되고 왜곡된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둘째, 교육대상의 범위와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다문화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육목표와 내용, 방향성과 과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이제 시작단계라고는 하지만 아직 교육대상이 지극히 제한된 범위와 범주에 한정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문화교육 대상의 범위와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대상별 교육과정과 내용 그리고 수업방식을 포함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편향적인 시민교육에서 벗어나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양자가 균형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막론하고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매우 적고, 그것도 주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문화의 이해수준과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그 결과 조사자의 절대다수가 다문화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정도에 따라 그 필요성과 이유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정도와 필요성 및 그 이유의 범위는 정(正)의 관계에 있었다.

넷째, 다문화 학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되, 현재의 초등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범교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에 따라 그 방법은 달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회의 다문화집단 간의 공존을 위한 장애극복과 공존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동화주의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학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주체들 간의 공유의식을 전제로 각각의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주

- 1) 본 연구에 있어서는 '다문화 학교교육'이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소수문화집단에 대한 이해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을 교육하는 다문화에 대한 학교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 2)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18,778명이고, 그 중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의 평균은 486명이고, 대구는 456명으로 가장 평균치에 가깝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총 1,402명 중에서 서울·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평균은 31.3명고, 대구는 33명으로 가장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어, 대구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시도별 평균값과 유사하다.
- 3) 각 구별 설문조사대상학교는 동구의 동대구, 동신, 신성, 신암, 신천, 아양, 율하, 영신초등과 서구의 서부, 평리초등, 남구의 남대구, 남도, 대명, 봉덕, 성남, 성명초등, 북구의 관남, 산격, 칠성, 침산초등, 중구의 남산, 동성, 명덕, 삼덕, 종로초등, 수성구의 경동, 고산, 대청, 동산, 동성, 동천, 범어, 범일, 사월, 삼육, 성동, 수성, 용지, 옥수, 지산, 파동초등 그리고 달서구의 대구교대부속, 대진, 상인, 선원, 성남, 성서, 용산, 용전, 월배, 월서, 월촌, 유천, 장기, 진월, 진천, 효성초등학교이다.

##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김영순, 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김인, 2009,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현황 및 지향점, 초등교육연구, 22(1), 23-42.
- 박상철, 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

- 책, 초등교육연구, 21(2), 1-19.
- 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식 등, 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원은경, 2007, 다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일반학생의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은지용, 2007, 청소년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17-241.
- 이수정, 2009,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문화교육의 과제와 방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실, 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 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 281-305.
- 전경숙 등, 2007,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천선영, 2004,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한·독사회과학논총, 14(2), 363-380.
- 최연경, 2008,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小林哲也·江淵一公, 1997, 多文化教育の比較研究, 九州大學出版會, 福岡.
- Baker, G. C, 1994, *Planning and organizing for multicultural instruction*, Addison-Wesely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Banks, J. A, 2001,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 Banks, J. A,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Characteristic and Goals. In Backs, J. A. and C. A. M. Book(Eds.), *Multicultural education : Issues and perspectives*(5th ed), 3-30.
- Davidman, L. and Davidman, P. T, 1997, *Teaching whit a multicultural perspective : A practical guide*(2nd ed.), Addison Wesley Longman, Inc, New York.
- Derman-Spark, 1989; *Anti-biascurriculum :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NAEYC, Washington, DC.
- Ramsey & Derman-Sparks, 1992, Multicultural education reaffirmed, *Young children*, 47(2), 10-18.
- Ramsey, 1987,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Sleeter & Grant, 1987,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S. *Harvard Education Review*, 57, 421-444.
- Suzuki, B. H, 1979, Multicultural education : Whats it all about. *Integrate education*, 17, 42-50.
- The encyclopedia of American education, 1996,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2nd ed.), 630-631.

(접수: 2009.6.9, 수정: 2009.7.6, 채택: 2009.8.11)